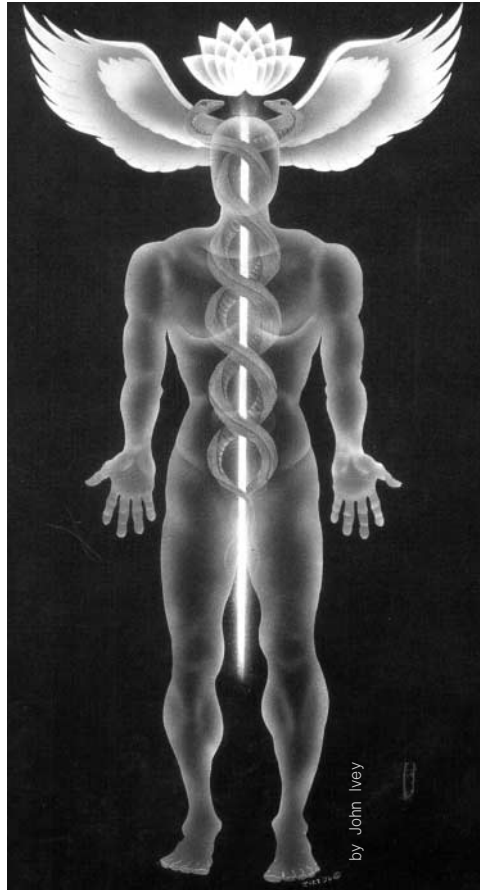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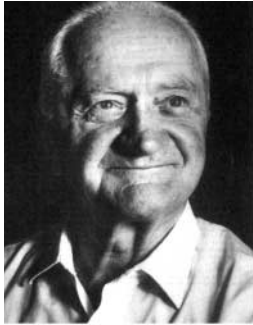
태극요법(Polarity Therapy) 의 원리

브루스 버거(Bruce Burger)
/ 조인성(‘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이 글은 North Atlantic Books 에서 간행한 Bruce Burger의 《Esoteric Anatomy》중 일부를 허락을 얻고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그는 태극요법을 통해, 특정한 질병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닌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자기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태극요법(Polarity Therapy)이란 무엇인가?



▲ Dr. Randolph Stone(1890-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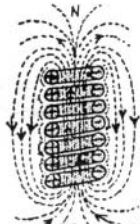
태극요법은 치료 기술적인 면에서 에너지(氣)의 이해에 바탕을 둔 포괄적인 건강요법 체계이다. 랜돌프 스톤(Randolph Stone, D.C., D.O.)에 의해 개발된 태극요법은 비전적인(Esoteric) 치료법과 자연요법에 대하여 60여년 동안 연구와 임상실험을 거듭해온 성과의 극치이다. 고대 인도의 지혜(베다 철학-역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톤은 그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생명과 치유의 과정에 대한 심오한 비밀을 통찰하였다. 그는 태극요법을 '에너지 의학'-미래의 치료과학-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건강 증진을 위한 의학(不治已病 治未病-역주)으로 기획하였다; 증상보다는 사람 그 자체를 다루는 학문; 인체를 에너지로 이해하고 생명력으로서의 에너지를 치유의 힘으로 삼는 학문으로 설계하였다.

태극요법에서는 인체를 하나의 에너지장(Energy Field)으로 이해한다. 치유자의 손으로부터 방사되는 강력한 생명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인체 에너지의 균형을 조절하고, 긴장과 에너지의 정체를 해소시켜 인체를 자연 및 우주 에너지와의 조화 상태로 회복시킨다. 태극요법에서의 치료 기법은 에너지의 균형을 잡는 것(Energy Balancing)이며 치유자의 자비심이 가득한 손의 접촉과 치유 의지를 통한 치유과정이다. 또한 태극요법에서는 역동적인 운동요법과 인체의 정화와 치유를 위한 식이요법을 제시한다. 태극요법은 또한 심오한 육체/정신/영적인(Body/Mind/Spiritual) 심리학이며 에너지(氣), 자연, 그리고 치유(Healing)에 대한 깊은 이해에 근거한 학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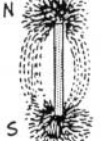
태극요법 건강 관리사(Polarity Health Educator)의 역할

태극요법은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치유

↓ 솔레노이드(管形코일)주위의 실제 전자기력선.



↓극 부분에 쇠가루가 집중되어있는 막대자석이 머리+관절을 돌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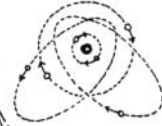
↓막대자석과 역선(力線)으로서의 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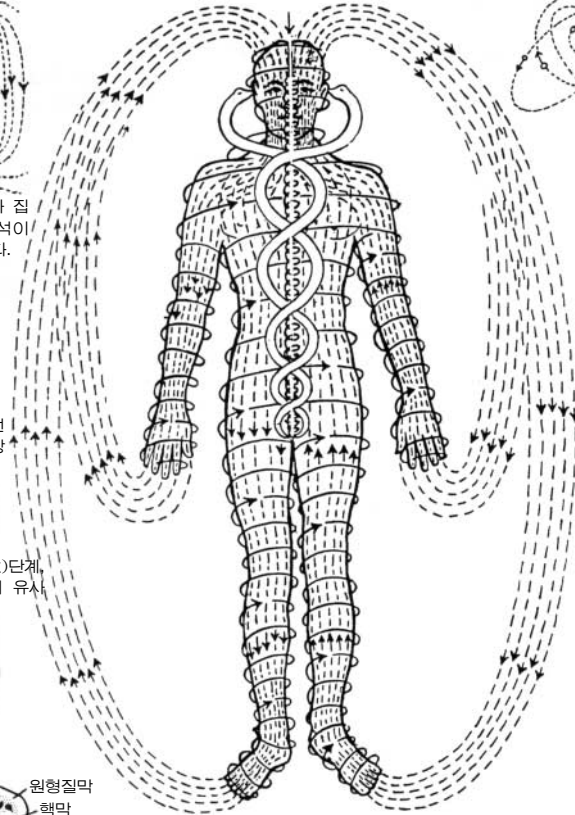
↓염색체 변위(變位)단계 수정된 흰 뱀어알의 유사분열식 세포분열



↓6개의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가 6개의 양전자를 가진 무거운 핵 주위를 돈다.



초음파 중심



▲ 신체와 그를 순환하는 패턴 힘의 구성도—태극요법에서는 인체를 에너지로써 인식한다. 헤르메스의 지팡이(Caduceus)와 차크라 체계에서의 에너지 중심(core)에서 발산되는 10 가닥의 에너지 흐름.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심신일원적(Holistic)이고 교육적인 학문이며 개인의 영적인 진화를 촉진시킨다. 태극요법사는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지 치료가 주된 목적은 아니다. 이들은 건강을 다루는 것이지 특정한 질병을 다루지는 않는다. 건강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능력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태극요법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특정한 질병에 의한 증상을 개선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을 이해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자기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사를 방문한다.

태극요법 건강교육자는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기법을 교육한다. 태극건강 교육자는 환자가 자기 생명의 심원함, 완전성(Integrity), 그리고 자비심(Pathos) 등을 소중히 여기는 진화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한다. 태극요법은 내적인 인도자(영혼-역주)의 높은 수준과 부여받은 생명력을 보살피는 완전성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자가요법이기도 하다. 태극요법에서의 에너지균형은 증진된 생동감, 정신적인 및 정서적인 고결함(Clarify), 그리고 스스로의 완전성(Integrity)을 경험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와 같이 명료한 상태는 초자아(Higher Self)와의 교감(Attunement)이며, 개개인이 의식의 고양과 건강의 증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태극요법사는 환자들이 좀 더 건강해 질 수 있고 좀 더 자각적인(Conscious) 생활양식을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한다.

혁신적인 치료 요법

태극요법은 혁신적인 치료 요법을 제공한 고대 인도의 초개아적인(Transpersonal) 패러다임에 기초한 것이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창조의 모든 에너지는 영원히 지속되는 우주의 에너지이다. 태극요법은 환자 개개인을 우주 진화의 선봉(leading edge)이 인격화된 것으로 이해한다. 각 개인들의 삶은 신성한 것이다. 각 개인이 치유되는 것은 영적인 진화가 실현되는 문제의 반영으로 여긴다.

사람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성장의 순환주기가 있다. 삶은 영혼이 배움을 경험하는 터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영혼의 진화적인 관점은 인간과 인간의 존재 조건의 심오함을 깊이 존중함을 의미한다. 사람의 성장과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은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진화하는 우주에서의 한 순간을 체험하는 신성한 여행이다.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들-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모든 도전들, 자아의 실현에 대한 모든 저항들-은 영적인 진화 주기에서의 전환기이다.

태극요법사는 질병을 사람의 영적인 진화과정의 하나로써 이해하고 존중한다. 왜냐하면 질병은 개인의 진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 중 하나의 은유(Metaphor)로 인식되므로, 치료자는 환자를 깊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질병은 또한 각 개인의 진화적인 욕구로부터 도피할 수도 있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질 수도 있다. 질병은 휴식과 생명력의 배열(Marshalling), 또는 생명력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한 지원과 지원을 얻기 위한 개별적인 필요성에 의해 생긴다고도 볼 수 있다. 사고와 질병은 의식적인 자아(Ego)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영적인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태극요법사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 밖으로 끌어내어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치료하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적인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체의 모든 세포는 각각 하나의 마음(Sentient)이다. 통증을 심하게 느끼면 세포가 위축되어 에너지 흐름의 장애가 생긴다. 태극요법에서 에너지 균형의 원리는 인체 세포에 저장된 외상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긴장과 저항, 그리고 인체의 과도한 방어작용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숨을 편안하게 쉬는 상태, 의식이 자각된 상태, 그리고 충분히 생동감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환자를 유도한다.

모든 생명의 신성함(Sacredness)과 통일성(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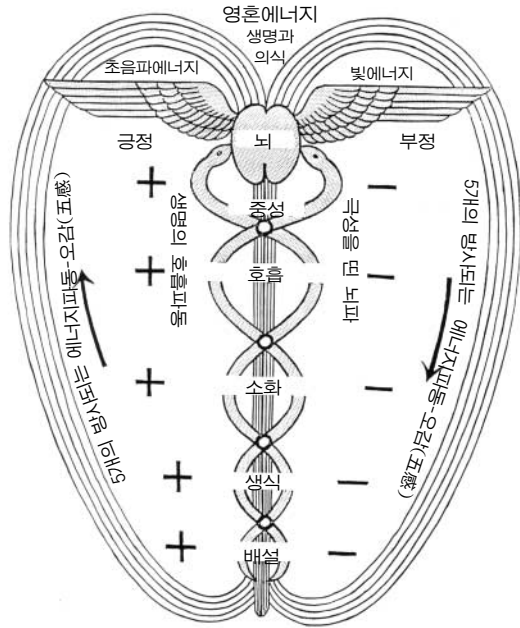
우리는 두 가지 차원-영혼과 육체의 차원에서 존재한다. 우리의 감각은 오로지 물질적인 차원에 맞추어져 있지만, 영혼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다. 영혼(Spirit)은 육체를 초월하여 생로병사의 순환주기 밖에 존재한다.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육체는 즉시 분해되기 시작한다. 영혼이 없다면 육신은 곧 바로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불결하고 부패하는 것이 된다. 영혼은 매 순간마다 인체의 에너지 장에서 방사(Emanate)된다. 태극요법에서는 이것을 영혼, 생명의 원천, 제1의 에너지, 자아(Self), 또는 생명장(Life Field)의 충만함(Pervasive)이라고 부른다.

통일성(Oneness)은 이러한 우주론의 토대이다. 고대 인도의 지혜에서는 모든 의식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각각의 의식은 우주적인 의식의 바다에서 각각 하나의 물방울이다. 생명의 각 단위는 전체 생명의 한 부분이다. 각각의 생명은 영생의 나무에서의 각각 한 송이 꽃이다. 고대 인도의 지혜는 모든 의식의 통일성과 모든 생명이 신성함과 통일성에 대한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상계의 변화는 불변하는 우주적인 지혜의 장(field)에서 발산되는 것이다. 히말라야의 현자들은 이러한 생명의 근원을 자아-Self(Atman을 의미함-역주)라고 불렀다.

태양계, 자연, 그리고 인체는 창조적 지성이라는 단일 체계의 한 부분이다. 모든 생명 체계는 우주라는 하나의 생명 체계의 진화 과정에서 하위 체계이다. 영혼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생명력은 영혼이 육체에 스며든 것이다. 육체는 영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조화(Attunement)가 바로 치유와 건강의 열쇠인 것이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영혼(Soul)을 “생명 또는 살아있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이 연계된 생명을 불어넣는 본질 또는 원리(An animating essence or principle

held to inseparably associated with life or living beings)”라고 정의하였다. 살아있는 육체에는 영혼이 스며들어 있다. 모든 원자, 분자, 그리고 인체의 세포들의 핵에는 영적인 영역과 동조되는(tunable) 좀 더 높은 전위(Potential)의 에너지장이 형성된다. 육체적인 에너지장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의 핵에서 방사되는 것이다. 육체가 이런 방식으로 영혼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유지된다. 영혼은 육체를 영적인 진화의 한 과정으로써 표현한다. 고대 인도의 지혜에서는 인체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영혼이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체의 살아있는 의식은 바로 영혼인 것이다. 영혼은 가장 내적인 자아-각각의 존재 속에서 의식적이고 살아있는-이다. 영혼은 자체적으로 존재하며, 경계가 없는 자각(Unbounded Awareness)으로서 통일성을 갖는다.



▲ 정신생리적인 열쇠, 태극요법—스톤박사는 영혼을 인체 에너지장의 핵심으로서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으로 인식하였다. 영적인 에너지는 카두세우스(Caduceus)를 통하여 육체적인 장으로 단계적으로 하강하며, “음과 양의 이원적인 힘이 인체의 모든 조직에 전달된다.”

태극요법(Polarity Therapy) 제1의 원리

스톤 박사는 영혼(Soul)을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으로 인식하였다. 영

혼에서 발산되는 생명력으로서의 에너지 흐름은 인체에서 에너지 장을 유지한다. 스톤 박사는 태극요법의 원리들을 요약하여 서술한 “Introduction to Wireless Anatomy”에서 언급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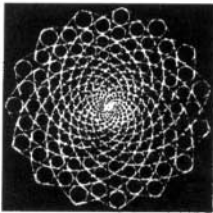
영혼은 영원한 정신(Eternal Spirit)의 바다 중에서 한 방울의 물이며, 이것이 육체에서 식별자, 보는자, 그리고 행위자로서 거주하며 모든 감각과 행동을 일으킨다. 영혼은 단독으로 인체에서 어떤 치유나 행위의 작용 방식에 반응하는 힘이다. 의식과 지성은 영혼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태극요법의 제1의 원리이다. 태극요법에서의 치료과정에는 육체의 영혼과의 조화를 조절하는 과정이 있다. 다시 스톤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원자 에너지의 연구와 이에 따른 물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이러한 현대적인 발견에 부합되는 치유기법의 방향 전환을 촉진하였다. 이 WIRELESS ENERGY FIELD(도선이 없이 장으로서 존재하는 인체 에너지-역주)에서는 고대와 현대의 과학이 합치되며...

기적과 정신요법은 태극요법에서 다루지 않는다. 태극요법은 합리적인 치료 체계이다... 인체에 근본 원리(Key Stone)로서 작용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에 대한 매우 훌륭한 관점이다. 인체의 형태와 연관되어 육체에 거주하는 영혼 또는 핵심에 대한 것과 육체와 영혼의 전체로서의 자연 또는 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관점들은 에너지 장에서의 인력(attraction)과 반발력(repulsion),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의 관계 등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져다준다...

태극요법은 인체 에너지장을 해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생명과 치유의 근원인 영혼(Soul)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태극요법은 치료 기법에서도 에너지를 탐구한다. 태극요법에서 말하는 에너지의 개념은 광범위한 비전(秘傳)의(Esoteric) 철학에서 도출된 것이다. 사나타나 다르마(Sanatana Dharma:



◀ 신의 두 손 -

원심성의 나선과 구심성의 나선, 그리고 해바라기 꽃의 무늬 같이 자연에서의 에너지장은 에너지 중심에서 방사되는 원심성 및 구심성의 에너지 흐름의 결합 형태이다.

영원한 철학)라고 불리는 고대 인도의 우주론은 태극요법의 많은 기본적인 개념들의 원천이다. 사나타나 다르마에서는 우주를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인 브라만(Brahman)으로 묘사한다. 브라만은 궁극의 지성(Ultimate Intelligence)인 하나의 우주장(Universal Field)으로서 존재한다. 산스크리트 어휘인 브라만은 'Brih' 즉 '팽창하는(to expand)'이라는 어근에서 온 것이다. 브라만은 창조적 지성(Creative Intelligence)의 영원히 팽창하는 숨결로 묘사된다. 브라만의 본질은 끊임없는 창조, 진화, 그리고 성장이다. 모든 창조는 이

러한 살아있는 의식의 우주장으로부터 매 순간마다 이루어진다. 스톤 박사는 이러한 창조적 지성(Creative Intelligence)의 장을 제1의 에너지, 하나의 생명 또는 영혼으로 제시하였다.

태극요법(Polarity Therapy)의 세 가지 기본원리들

우주는 브라만의 창조적인 잠재력이 진화하는 또는 펼쳐지는 곳이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는 힘의 장을 만드는 근원으로부터 밖으로 발산되며 에너지장 잠재력의 한계에 도달하면, 에너지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창조의 각 단계에서의 모든 에너지는 태극이라고 명명된 진화 주기를 통해서 움직인다. 진화 주기는 창조적 지성의 본질을 표현한다. 근원에서 체험의 장으로 움직이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의식의 주기이다. 모든 에너지는 이러한 창조적 지성의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주기는 중성(Neutral)의 근원에서 양성의(Positive)의 근원으로, 그리고 나서 음성의(Negative) 상태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리들, 중성, 음성, 양성 등이 태극요법의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이다.

사나타나 다르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사트바 구나(Sattva Guna: 중성), 라자스 구나(Rajas Guna: 양성), 그리고 타마스 구나(Tamas Guna: 음성)라고 부른다. 'Guna'는 인도-유럽어군의 'Gere'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비틀어 돌리는" 또는 "빙빙 도는"의 의미이다. Guna들은 진동하는 에너지장의 나선형의 소용돌이를 의미한다.

사트바 구나는 중성의 원리로 자연에서 평형을 이루려는 힘이다. 사트바 구나는 살아있는 의식의 모든 곳에 퍼져있는 하나의 통일장(Unified Field)이다. 산스크리트 어휘인 'Sat'는 존재를 유지하는 최상의 존재(Supreme Being)라는 의미이다. 각 존재의 생명과 의식은 사트바 구나의 생명장에서 존재한다. 중성적인 조화는 진리, 빛, 은총(Grace), 고요함, 그리고 영혼의 심오함(Profundity) 등을 반영한다. 사트바 구나는 맑고, 흡인력이 있으며

에너지의 세 가지 양태(Mode)

(Dr. Randolph Stone의 'The Wireless Anatomy of Man'에서 인용함)

세 가지 우주적인 (파동)운동의 원리들로서의 구나들(Sattva, Rajas, Tamas)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중성의 사트바축 둘레를 양성의 라자스와 음성의 타마스가 나선형으로 회전한다. 이러한 구나들은 태극요법에서 인체에서의 상부, 중부, 그리고 하부의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이 되며 의식과 생명활동, 인체의 움직임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태극요법에서의 태극의 원리는 태생기 동안의 육체의 형성 및 발달 과정에 작용한다. 태생기에서 신경(Wire)과 혈관(Tube)이 형성된 후 이 원리가 수행된다(태극의 원리는 도선이 없는 에너지장 형성의 원리이다-역주). 이러한 에너지 장과 에너지 흐름이 차단되면 통증과 질병이 생기는 에테르적(Ethereal) 및 물질적인 원인이 형성되는 것이다. 중성적인 에너지 중심(사트바 구나의 축)에서부터 에너지 흐름이 다시 균형을 이루면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회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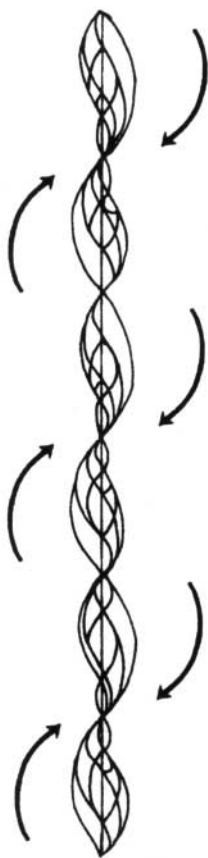
(attractive), 매혹적이고(fascinating), 권위적이고(charismatic), 평화적이고, 균형적이며 은혜로운 속성이 있다. 아기들의 귀엽고 매혹적인 모습, 성인들의 권위적인 모습, 건강함의 열정, 그리고 자연의 고유한 아름다움 등은 이러한 사트바 구나의 조화로움이 우세한 모습이며, 생명장의 중성적인 원천과 조화를 이룬 것이다. 태극요법의 치료에서 중성적인(Sattvic) 접촉법은 현존하는 영혼의 치유력에 대한 조화성과 수용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라자스 구나는 사트바 구나에서 나온 것으로 양성의 원심성 힘이다. 라자스 구나는 영적인 진화과정의 기저에 있는 창조적인 힘의 표현이다. 산스크리트 어휘인 Rajas는 “달아올라 빛나는”의 의미이며, 라자스적인 현상은 열정적이고, 흥분적이며, 활력이 있고, 창조적인 것이다. 에너지의 근원에서 나온 라자스 구나는 자연에서 기본적인 구성을 취하는 원리이다. 라자스 구나는 의식적인 마음을 유지한다. 라자스 구나가 우세한 현상은 창조적이고, 역동적이며,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directive), 그리고 변형적이다. 이 양성적인 힘은 현상의 발산적인 표현을 지배하고 조절한다.

타마스 구나는 음성의 구심적인 에너지장이다. 타마스 구나는 형태를 유지한다. 타마스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제한하는 구조와 토대를 지배한다. 산스크리

에너지의 세 가지 양태들을 수기(手技)요법에 응용하면, 에너지 흐름들의 균형을 이루고 에너지 통로들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른 흐름의 통로(신경, 혈액, 체액-역주)가 차단되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

- ㉔ 중성의 원리(Sattva)로는 진정(Soothing)과 균형을 이루며, 신체 태극의 중심에 손가락의 태극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엄지는 중성, 제2, 4지는 음성, 제3, 5지는 양성-역주) 매우 가볍게 접촉하여 치료한다.
- ㉕ 양성의 원리(Rajas)로는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한다.
- ㉖ 음성의 원리(Tamas)로는 음극의 저항 작용을 통해 분산시키고 소멸시키며 배설시키는, 강하고 깊으며 침투적이고(penetrating), 유도적인(eliciting) 일정한 반응들을 일으켜 신체의 각성과 반작용을 만들어서 에너지의 흐름을 각성시키고 조절한다.



▲ 하나의 끈이 세 가닥으로 꼬여있는 것과 같이, 모든 에너지의 파동은 세 가지 힘이 나선형으로 작용한다. 정적인 축의 둘레를 원심성의 힘은 상강하고, 구심성의 힘은 하승한다. 모든 파동은 세 가지 힘이 나선형으로 균형을 이룬 것이다.

트 어휘인 타마스는 “소멸하다”의 뜻이다. 타마스는 영혼이 육체로 결정되는 기저에 놓인 수축성의 자기장이다. 이것은 아름다움과 지혜 또는 관성(Inertia)과 저항을 나타내는 진화 상에서 근원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본능적인 힘이며, 그리고 제거(배설)와 완성의 과정이다. 타마스는 또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는 정화의 힘이다.

고대의 리시(Rishi: 요가의 선지자, 현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극히 미세한 구조를 투시할 수 있는 투시안을 얻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연과 우주의 근원적인 힘을 관조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구나라고 명명한 우주 에너지의 기본적인 속성을 체험하였다. 이 속성은 원자와 분자의 수준에서 관찰되는 에너지 장의 원심성 및 구심성 나선형의 파동으로, 정적인 중심축을 감싸고 있는 원심성 및 구심성의 끈들과 유사한 모양이었다. 모든 에너지의 파동은 이러한 세 가지 에너지 속성이 나선형으로 얽혀 파동을 치는—즉 중심축 둘레에서 원심성의 힘은 상강하고, 구심성의 힘은 하승하는—것이다. 모든 에너지의 파동은 이러한 세 가지 힘이 나선형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다.

사나타나 다르마에서 모든 창조는 세 가지 우주적인 힘-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에 의해 유지된다. 자연에서의 에너지장은 에너지의 중심에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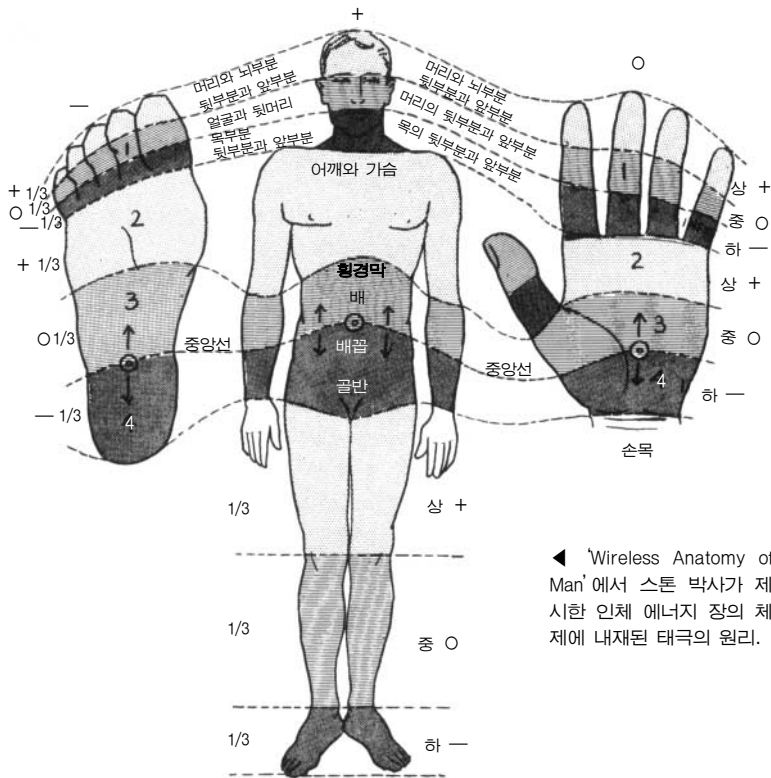
심성 및 원심성으로 나선형의 궤도를 그리며 소용돌이치는 모습이다. 자연에서의 구조는 중심에서부터 서로 반대 방향-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며 방사되는 나선형의 형태들을 이룬다. 모든 생명은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태극(Polarity)은 우주법칙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태극의 주기는 대우주(macrocsm)와 소우주(microcosm)의 각 창조의 단계 수준에서 모든 에너지 장의 기저에 존재한다.

태극(陰/陽極)의 주기(순환)

생명은 파동(Wiggle)들의 연속이다! 모든 창조물은 에너지의 파동이다. 파동의 기본적인 형태에는 항상 주기가 있다. 자연의 모든 것은 (파동의)주기: 탄생과 죽음,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들숨과 날숨 등으로써 표현된다. 자연에는 항상 원심력과 구심력, 팽창과 수축, 미는 것과 당기는 것, 생성과 파괴, 능동성과 수동성, 전기와 자기, 남성과 여성, 산과 염기, 양극과 음극, 영혼과 물질들 사이의 역동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동성을 표현하는 용어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음(陰)과 양(陽)”이며, 전체적으로 이러한 힘들의 상호작용을 “도(道; Tao)”라고 부른다. 인도에서는 이것을 “최상위의 궁극적인 원리” 그리고 “신의 두 손”이라고 부른다. 스톤 박사는 이것을 모든 자연적인 극성(極性; 태극)에 내재하는 에너지의 살아있는 주기라고 불렀다.

에너지는 항상 움직인다. 모든 생명들은 자연과 우주의 모든 힘들에 내재된 보편적인 극성에 조화를 이루면서 맥동하고, 진동하며, 파동을 이루며 공명한다. 극성은 항상 중성의 에너지 중심에서 발산되어 양성/원심성 에너지장을 이루고 나서 음성/구심성 에너지장을 끌어 들어가면서 중심으로 복귀하는 위상의 주기로 묘사된다.

물질의 분자 수준에 있는 전자기장은 단지 우주적인 진화 모델의 한 예이다. 자연에서 일체의 모든 수준들은 양성/원심성, 그리고 음성/구심성의 위상들을 가지고



◀ 'Wireless Anatomy of Man' 에서 스톤 박사가 제시한 인체 에너지 장의 체제에 내재된 태극의 원리.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쉴 때에는 팽창하는 양성의 에너지 시기, 균형을 위한 조절 시기, 그리고 이완과 정화(Purifying)의 시기 등이 연속된다. 태극요법에서의 에너지 균형기법에서는, 인체의 에너지장들에서의 저항을 해소시켜 진화적인 주기의 완전성을 회복시키고 에너지 흐름을 좀 더 맑고 높은 자연과 우주의 에너지 파동에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North Atlantic Books 간, <Esoteric Anatomy>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저자 : 브루스 버거(Bruce Burger)**

B. 버거는 신체 심리학(Somatic Psychology)과 마사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 양성기관의 하나인 하트우드 연구소(Heartwood Institute)의 창립자이다. 캘리포니아 가브리엘 외곽 240에이커 땅에 자리잡고 있는 하트우드 연구소는 현재 20년째 공동체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는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네바다 대학 러거스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했다. 1972년 은퇴한 이 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동양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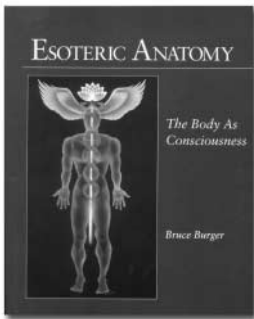


■ **역자 : 조인성**

1962년 생. 경희대 한의학과 졸업. Energy-Medicine분야를 연구 중. 역서 <척추 측만증>, <Foundation of Osteopathy Medicine>, <Foundation of Chiropractic-Subluxation> 등 다수.
E-mail: threesm@hanmail.net

Esoteric Anatomy

Bruce Burger 저 / North Atlantic Books 간 / \$ 22.50



Bruce Burger는 이 책에서 모든 창조물은 에너지의 파동이라고 말한다. 즉, 탄생과 죽음,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들숨과 날숨, 원심력과 구심력, 팽창과 수축, 남성과 여성, 능동성과 수동성, 양극과 음극, 영혼과 물질 사이에 음(陰)과 양(陽)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역동성이 사람이 몸에도 살아 숨한다고 제기한다. 이른바 에너지 장이다. 그의 태극요법은 에너지의 균형을 조절하고, 긴장과 에너지의 정체를 해소시켜 인체가 자연 및 우주에너지와 조화 상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의 태극이론은 신비롭게만 여겨져왔던 자연상태의 에너지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

■문의처 : bwarner@northatlanticbooks.com